

傳奇的野談〈李義男〉의 生成과 流變樣相

金東旭*

◁ 목 차 ▷

- I. 머리글
 - II. 傳奇的 傳來
 - III. 〈柳毅傳〉과 〈李義男〉의 關聯樣相
 - IV. 〈李義男〉의 流變樣相과 그 意味
 - 1. 〈靑邱野談〉에서 〈東野彙輯〉으로의 流變
 - 2. 〈靑邱野談〉에서 〈東廡記纂〉으로의 流變
 - V. 마무리
-

I. 머리글

《靑邱野談》에 〈義男臨水喚俞織〉이라는 제목으로, 《東野彙輯》에는 〈官童接黃龍現異〉라는 제목으로, 《東廡記纂》에는 〈李義男〉이라는 제목으로 각篇이 전하는 동일 유형의 이야기를 이 글에서는 〈이의남〉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 이야기는 조선 조 말에 전파된 야담으로서는 조금 특이하게 傳奇的 성격을 짙게 띠고 있다. 인간이 水府를 왕래하는 이야기이면서, 인간과 神龍의 異交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여타의 야담 자료들에 비해 작가 나름의 창작 의도가 엿보이고, 사회현실이 적지 않게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인 주인공과 용녀 사이에 애정으로 인한 갈등양상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¹⁾

일반적으로 전기류 혹은 전기소설의 경우, 중국 唐代에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²⁾ 그것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경우도 羅末麗初에 전기가 성립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 그러므로 어떠한 배경에서 〈이의남〉이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더듬어

*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林榮澤, 「羅末麗初의 傳奇文學」, 『韓國文學史의 視覺』(서울, 창작과비평사, 1984), 22쪽의 전의 특징에 관한 언급 참조.
2) 魯迅, 『中國小說史略』, 趙寬熙 譯, (서울, 살림, 1998), 161쪽.
3) 이혜순, 「傳奇小說의 전개」, 『古小說史의 諸問題』(서울, 집문당, 1993), 221~225쪽.

보는 것이 이 글의 예비적 과제이다. 또한, 이 자료를 싣고 있는 세 문헌에서의 수록 태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이 이야기가 구전과정을 거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고, 구전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굴절은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문헌에서 문헌으로의 전제 과정에서의 굴절이나마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문헌 사이의 전제 과정에는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인정되므로⁴⁾, 그 시차에 따른 굴절 현상을 여기서는 流變이라는 용어를 써서 일컫기로 하겠다. 문헌 사이의 유변양상을 추출하여 그 시대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최종적 목표이다.

II. 傳奇의 傳來

현재 전하고 있는 야담집을 통해 확인해 보았을 때, 중국의 志怪類나 傳奇類로 야담집에 언급된 것 가운데 가장 시대적으로 앞서는 것은 4세기 무렵 東晉의 干寶가 저술한 《搜神記》이다. 任昉이 저술한 야담집 《天倪錄》에 실려 있는 〈孟道人携遊和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아아, 괴력난신은 공자께서 경계하신 바이다. 그런데 원통함이 응결하여 꿈을 빌려 이야기를 전한 이상한 일이 또한 많이 있다. 간보의 《수신기》와 우송유의 《유괴록》도 대개 그러한 일에서 나온 것이리라. (嗚呼 怪力亂神先聖所戒 而冤氣凝結 托夢傳說 異常之事 亦多有之 于(sic) 干寶之搜神記 牛僧孺之幽怪錄 盖亦出於這箇事耶)⁵⁾

唐代 牛僧孺의 傳奇集인 《幽怪錄》도 위의 인용문에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밖에 당대의 전기 작품 가운데 야담집에 언급된 것으로는 元稹의 《鶯鶯傳》, 白行簡의 《李娃傳》 등이 있다.⁶⁾ 그러나 이들 작품들은 개별적으로 이 땅에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이 대부분 《太平廣記》에 수록되어 있고, 《태평광기》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 땅에서 널리 애독된 문헌이기 때문이다.

《태평광기》에 대한 최초의 문헌기록은 《高麗史》 제71권 樂志二에 실려 있

4) 《青邱野談》은 金敬鎮(1815~1873)이 1843년(헌종9)에 편찬하였고, 《東野叢輯》은 李源命(7~1887)이 1869년(고종6)에 편찬하였으며, 《東廂記纂》은 白斗鏞이 1918년에 간행하였다.

5) 任昉, 《天倪錄》, 鄭明基編, 《韓國野談資料集成》8(서울, 啓明文化社, 1987), 532쪽.

6) 《천예록》의 〈掃雲因窺玉簫仙〉 가운데 「及數年之後 男女年長 遂相親昵 兩情俱感 綉繡纏綿 不翅若鄭生之於李娃 張郎之於鶯鶯也。」라고 하여, 〈이매전〉과 〈앵앵전〉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책, 482쪽.

는 〈翰林別曲〉이다. 그 제2장은 널리 알려진 문헌들을 열거하는 대목인 바, 중간에 나오는 후렴구에 「태평광기 4(sic 5)백여 권을, 아아, 두루 열람하는 광경이 어떠하니고? (太平廣記, 四百餘卷, 偉, 歷覽景何如?)」라는 데에서 그 당시 이미 《태평광기》가 수입되어 널리 읽히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明나라 瞿佑의 《剪燈新話》에 자극을 받아 金時習의 《金鰲新話》가 창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成宗 때는 成任(1421~1484)이 《태평광기》 500권에서 발췌하여 《太平廣記詳節》 50권을 만들어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고,⁷⁾ 선조조에서 경종조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평광기언해》 5권5책이 있다. 이 책은 현재 제2권이 落帙이나 나머지 4권에 103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바, 《태평광기상절》을 저본으로 언해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태평광기》뿐만 아니라 '전기'나 '소설'을 언급한 야담의 기록이 아래와 같이 있어, 전기류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하건대, 여우가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여 사람을 홀렸다는 것은 태평광기나 여러 소설류에 다수 실려 있다.(評曰, 狐之幻作女形, 迷人惑衆, 廣記及小說諸家多有之.)⁸⁾

평하건대, 내가 일찍이 전기를 보니 설 주부가 잉어가 되고 이생이 호랑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허무맹랑하다고 여겼었다.(評曰, 曾見傳奇, 有薛主簿化鯉, 李生化虎之說, 而疑其誕也.)⁹⁾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도록 중국에서 전래된 전기류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연연히 이어져 온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그 출현이 갑작스럽게 보이는 〈이의남〉 또한 중국의 전기 작품과 무관할 수 없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실제로 《동상기찬》 소재의 〈이의남〉에는 작품 문면에 당나라 때 전기류의 하나이면서 《태평광기》에 실려 전하는 李朝威의 〈柳毅傳〉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¹⁰⁾ 《동야회집》 소재의 〈이의남〉 자료에도 끝에 편저자가 評說하는 가운데 〈유외전〉을 언급하고 있다.¹¹⁾ 이러한 양자 사이의 관계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成規, 《慵齋叢話》, 권10: 「伯氏文安公, 好學忘倦, 嘗在集賢殿, 抄錄太平廣記五百卷, 約爲詳五十卷, 刊行於世.」《국역 대동야승》1(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3), 660쪽.

8) 任望, 〈手執怪理恨開擲〉, 앞의 책, 550쪽.

9) 같은 책, 〈昇平族人老作猪〉, 498쪽.

10) 白斗簫, 〈李義男〉: 「吾父 使君傳書而成婚 ㄹ야 將迎君父母而欲繼柳毅之迹 ㄹ야…」《東廂記集》, 서울, 翰南齋林, 1918), 27쪽.

11) 李源命, 〈官直接黃龍現異〉: 「外史氏曰, … 小說有洞庭君女歸柳毅.」(鄭明基 編, 《原本 東野叢

Ⅲ. 〈柳毅傳〉과 〈李義男〉의 關聯樣相

《태평광기》 제419권에 실려 전하는 〈유의전〉의 경개는 다음과 같다.

당나라 儀鳳年間(676~678)에 유의라는 선비가 과거에 낙방하고 동정호 근방의 湘濱으로 돌아가는 길에 양치는 여자를 만났다. 수심에 쌓인 그녀의 표정을 보고 유이는 그 까닭을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동정호의 용왕인 洞庭君의 딸임을 밝히면서, 남편인 涇川君과 시부모에게 쫓겨났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유의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간 유의는 동정호로 동정군을 찾아가 그녀의 편지를 전하였다. 그녀의 절박한 사정이 알려지자, 동정군의 아우인 錢塘君은 즉각 조카사위인 涇陽君에게 달려가 그를 죽이고 조카딸을 데려왔다. 유의가 용궁에서 며칠 묵는 사이 전당군은 그에게 동정군의 새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으나, 유의는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하였다. 용궁에서 떠나올 때 선물로 받은 보물로 부자가 된 유의는 두 차례나 아내를 얻었으나 모두 일찍 죽고 말았다. 금릉으로 거처를 옮긴 유의는 그곳에서 남편을 일찍 여읜 盧氏를 다시 아내로 얻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뒤에야 자신이 동정군의 용녀임을 밝히고, 함께 동정호로 돌아가 인간의 수명을 뛰어넘어 행복하게 살았다.

〈유의전〉에서 〈이의남〉으로 차용된 것은 「傳書」·「용녀와의 結緣」·「용녀와의 結別」·「용녀의 환생과 재회」 등의 話業이다. 이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차용 화소인 「전서」가 〈유의전〉에서는 낙방한 뒤 친지를 찾아가던 유의가 길가에서 양을 치고 있는 용녀를 만나 그녀의 불행한 결혼생활의 사연을 듣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낼 편지의 전달을 부탁 받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을 다 마치고 나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스스로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리고 또 말을 이었다.

“동정호가 여기서부터 얼마만큼이나 떨어져 있나요? 먼 하늘이 아득하여 소식조차 끊어졌어요. 그리운 마음에 눈이 빠지고 애가 끊어진들 이 슬픈 심정을 알리려야 알릴 길이 없군요. 그런데 듣자하니 낭군계선 장차 오(吳)로 돌아가신다 하니, 동정호를 가까이 지나게 되시겠군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는 이에게 편지를 좀 전해 달라고 부탁드리려 하는데 낭군께서 해주실 수 있는지요?”(言訖, 歔歔流涕, 悲不自勝. 又曰: “洞庭於茲, 相遠不知其幾多也? 長天茫茫, 信耗莫通. 心目斷盡, 無所知哀. 聞君將還吳, 密邇洞庭. 或以尺書, 寄託侍者, 未卜將以爲可乎?”)¹²⁾

釋》下, 서울, 寶庫社, 1992), 737쪽.

12) 李朝威, 〈柳毅傳〉, 葉楚倫 編, 《傳奇小說選》(臺灣, 正中書局, 1977), 24쪽.

<이의남>에서는 鐵山 知印인 이의남이 사또를 따라 서울에 올라갔을 때 용산으로 봄놀이를 나가 한강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꿈에서 한 노인을 만나 편지의 전달을 부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철산 지인인 이의남이 사또의 행차를 따라 서울에 올라가 있었다. 마침 화창한 봄날을 맞아 강가의 경치를 구경하며 쌓여 있던 울적한 마음을 풀고자 하여 사또에게 아뢰고 용산으로 놀러나갔다. 높은 언덕에 올라 돛단배들이 오르내리는 경치를 구경하다가 문득 피곤하여 앉은 채로 깜박 졸았다. 꿈에 어떤 한 노인이 봉함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주며 말하기를,

“내가 집을 떠난 지가 오래 되었네. 우리 집사람이 오래도록 소식을 듣지 못해서 매우 궁금해 할 것이니 나를 위해 이 편지를 우리 집에 전해주면 다행이겠네.”

하는 것이었다. … 의남이 그러겠다고 하고는 꿈에서 깼다. 문득 봉함편지 한 통이 옆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깜짝 놀라는 한편, 기이한 생각이 들어 드디어 그 편지를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돌아왔다.(鐵山知印李義男, 隨其伴由行上京, 適值春和, 欲玩景江邊, 疎暢幽鬱, 告于其伴, 出遊龍山, 就高阜處, 玩帆橋上下之景, 忽覺困憊思睡, 坐而假寐, 夢一老人, 持一封書而來, 授之曰: “余離家已久, 家人不聞消息, 幸爲我傳此書于吾家.” … 義男許諾而覺, 忽見一封書在坐傍, 大驚異之, 遂藏囊中而歸.)¹³⁾

‘전서’를 부탁을 받고 응하는 과정에서 두 주인공은 모두 인간인 자신이 龍宮 혹은 水府로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한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대목이 두 자료에 모두 나타나는 바, 이것 또한 <이의남>이 <유의전>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간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다.

그녀가 말하길, “동정호의 남쪽에 큰 굴나무가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사굴이라고 한답니다. 남근에서는 이 허리띠를 푸시고 다른 것으로 묶은 뒤에 그 굴나무를 세 번 두드리시면 틀림없이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를 따라가시면 아무 장애물도 없을 겁니다.(女曰: “洞庭之陰, 有大橋樹焉, 鄉人謂之社橋, 君當解去茲帶, 束以他物然後, 叩樹三發, 當有應者, 因而隨之, 無有礙矣.”)¹⁴⁾

의남이 물었다. “노인장 맥이 어디에 있소?” “우리 집은 아무 산 아래 있는 큰 연못 가운데에. 연못가에 가서 ‘유철아!’하고 세 번 부르면 자연 어떤 사람이 물 속에서 나올 것이니 이 편지를 그에게 전하게.”(義男曰: “翁家在何處?” 翁曰: “吾家在某山下大澤中, 往澤畔, 三呼俞鐵, 則自有人從水中出來, 以此書傳之.”)¹⁵⁾

13) 金敬鏞, <義男臨水喚俞鐵>, 李佑成 編 《青邱野談》(서울, 亞細亞文化社, 1985), 16~17쪽.

14) 李朝威, 앞의 책, 24~25쪽.

15) 金敬鏞, 앞의 책, 16~17쪽.

〈유의전〉에 비해 〈이의남〉에는 異界로 들어가는 절차가 단순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허리띠를 갈아 매는 과정이 생략되었고, 굴나무를 세 번 두드리는 것이 유철을 세 번 부르는 것으로 달라졌다.

두 번째 차용 화소인 「용녀와의 결연」을 살펴보자. 유의가 동정군에게 용녀의 편지를 전하자 용녀의 딱한 사정이 삼시간에 온 궁중에 퍼지게 되었다. 동정군이 성미가 급한 아우 전당군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이에 이미 전당군은 조카사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를 처치하고 조카딸을 데려왔다. 유의가 편지를 전해준 노고에 사례하는 잔치가 연일 이어지던 끝에 淸光閣에서 연회가 있던 날, 술기운을 빌린 전당군은 조카딸을 위해 유의에게 청혼을 하게 된다.

전당군이 말하기를, “경양군의 아내는 동정군이 사랑하는 딸이요, 본성이 맑고 바탕이 넉넉하여 여러 친척들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나쁜 놈에게 욕을 당하다가 이제는 인연이 끊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장차 그대의 높은 의협심에 의탁하여 대대로 친척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군자의 한결같은 도리가 아니겠소?”(錢塘曰：“涇陽之妻，則洞庭君之愛女也。淑性茂質，爲九姻所重，不幸見辱於匪人，今則絕矣。將欲求託高義，世爲親戚，使受恩者知其所歸，懷愛者知其所付，豈不爲君子始終之道耶?”)16)

그러나 유의는 이러한 제의에 대해 예의와 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한마디로 거절하고 만다. 처음에 전당군을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는 대장부로 알았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풍악이 한창 흥겹게 울리고, 주객이 바야흐로 화목한 때에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위력으로써 남을 옥박지르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찌 평소 제가 바라던 바이겠습니까!(奈何簫管方洽，親賓正和，不顧其道，以威加人? 豈僕之素望哉!)」17) 라고 따지면서 인간인 자신이 용왕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부족하지만 감히 부정한 것에는 굴복하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전당군의 도리에 어긋나는 생각을 이겨보겠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하였다.18)

이에 비해 〈이의남〉에서의 결연 과정은 별다른 갈등이 없이 너무도 순조롭게 끝나고 만다. 이의남은 사람이 아닌 용녀와의 혼인에 대해 별다른 고민이 없이 그녀의 미모만을 살피고는 수락하고 마는 것이다.

16) 李朝威, 앞의 책, 29쪽.

17) 같은 책, 같은 곳.

18) 같은 곳. 「且毅之質，不足以藏王一甲之間，然而敢以不伏之心，勝王不道之氣，惟王養之!」

계단을 밟고 올라가니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듯한 소녀가 반갑게 맞이하며 말하였다. “우리 아버님께서 오래도록 집을 떠나 계신데도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이처럼 소식을 전해 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아버님 편지에 당신과 더불어 혼인을 맺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남이 기뻐하며 그러겠다고 하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본디 용왕의 딸입니다. 꺼림칙하지 않으신지요?” 의남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힐끗 쳐다보고 대답하였다. “꺼림칙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게 되었다. (升階而上, 有年少未笄之女, 欣然迎接曰: “吾父久離家鄉, 未聞消息, 傳通音信, 極爲感謝. 家父書有與君結婚之教, 未知君意如何?” 厥童喜而許之. 其女曰: “我是龍女, 得無所嫌乎?” 厥童見其美色, 答曰: “何嫌之有?” 遂留三日.)¹⁹⁾

세 번째 차용 화소인 「용녀와의 결별」을 살펴보자. 유의가 전당군의 제의를 거절하자, 전당군이 즉시 사과를 하면서 청혼은 有耶無耶가 되고 말았다. 이튿날 유의가 작별을 고하자 동정군의 부인이 연회를 베풀어 용녀로 하여금 유의에게 사례하도록 하였다. 작품에는 유의에 대해 미련이 남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부인은 울면서 유의에게, “골육을 나눈 내 딸이 군자의 깊은 은혜를 입었으나 한스럽게도 감사의 뜻도 제대로 표하지 못했는데 벌써 작별할 시간이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경양군의 아내였던 딸로 하여금 즉석에서 유의에게 절을 하고 사례의 말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부인은, “이제 서로 헤어지면 언제 또다시 만날 날이 있겠어요?” 하였다. 유의가 먼저는 비록 전당군의 청을 응낙하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서는 유달리 아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夫人泣謂毅曰: “骨肉受君子深恩, 恨不得展媿戴, 遂至睽別.” 使前涇陽女, 當席拜毅以致謝. 夫人又曰: “此別豈有復相遇之日乎?” 毅始雖不諾錢塘之請, 然當此席, 殊有恨歎之色.)²⁰⁾

이에 비해 의남과 용녀의 결별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의남의 요청으로 용녀가 가뭇이 극심한 철산 땅에 비를 뿌려 주기로 하였을 때, 호기심이 발동한 의남이 굳이 따라가기를 고집한 결과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 수궁의 물 한 방울이 인간세상에서는 한 치의 강우량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의남이 용녀가 가져간 물병을 병째로 쏟아 부었던 것이다.

용녀는, “... 저는 하늘에 죄를 지어 곧 천벌이 이를 것입니다. 당신은 어서 서둘러 나가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의 정을 잊지 않으시거든 내일 모름지기 백각산 아래 가서서 제 머리를 거두어 묻어 주세요.” 하였다. ... 이튿날 백각산 아래를 찾아가

19) 金敬躡, 앞의 책, 18쪽.

20) 李朝獻, 앞의 책, 30쪽.

보니 과연 용의 머리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품에 안고 돌아와 모래로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흘적삼으로 싸서 나무 상자에 담아 백각산 아래 묻고 통곡을 한 뒤 돌아갔다.(龍女曰：“我得罪於天，天罰將至，速速出去，如不忘今日之情，明日須往白角山下，收吾頭而埋之。”… 明日尋往白角山下，果有龍頭落下，遂抱而歸，淨洗沙土，以單衫裹之，以木函盛之，埋之於白角山下，痛哭而歸.)²¹⁾

네 번째 차용 화소인 「용녀의 환생과 재회」를 보기로 하자. 유의는 용궁에서 사례로 받은 보물로 부자가 되어 두 번이나 장가를 갔으나 두 아내 모두 일찍 죽고 말았다. 금릉으로 옮겨 할아버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청상이 된 노씨를 세 번째 아내로 맞았다. 그녀가 바로 용녀의 환생이었던 것이다.

신혼생활이 한 달이 지났을 때, 유의는 집에 돌아와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전의 용녀와 닮은 데가 있다는 것을 뚜렷이 깨달았다. … 그래서 아내에게 옛날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아내는 유의에게, “인간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하였다. … 아이를 낳고 한 달이 지났을 때, … 부인이 웃으면서 유의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옛날 저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옛날에 동정군의 딸을 위해서 편지를 전해준 일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지.” “제가 바로 동정군의 딸이에요.”(居月餘，毅因晚入戶，視其妻，深覺類於龍女，… 因與話昔事，妻謂毅曰：“人世豈有如是之理乎?” … 既產，踰月，… 笑謂毅曰：“君不憶余之於昔也?” 毅曰：“夙爲洞庭君傳書，至今爲憶。” 妻曰：“余卽洞庭君之女也.”)²²⁾

〈이의남〉의 경우, 용녀의 환생 대목은 《동상기찬》에만 나타난다. 용녀와 사별할 당시 의남의 나이가 15세였는데, 그 뒤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여 여러 곳에 혼담이 오갔으나 지체가 달라 끝내 이루어지지 않다가 용천읍에 사는 용씨 집안과 통혼이 되어 마침내 장가를 가게 되었다.

의남이 그녀에게 태어난 시각을 물으니, 바로 용녀의 머리를 묻었던 때였다. 15년 뒤에 다시 속세의 인연을 잊겠다던 말이 증명된 셈이었다. 그녀가 살던 용천이라는 지명과 용씨라는 그녀의 성씨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時에 義男의 年이 十五歲라. 後欲娶妻호야 屢處議婚而差池호야 終不成호거늘 遂斷念焉이러니 有龍川邑龍姓家에 通婚이어늘 遂娶호거니 年方十五勢而姿色이 甚麗호고 性行이 極順호야 以善事舅姑로 後至於自官給復而尤工織錦호고 持家勤儉호야 饒富於財호고 多有子女호니라. 義男이 卽其生時則卽某年埋龍頭之日也니 十五年後에 更續塵緣之言이 驗矣而地與姓이 爲確證호로다.)²³⁾

21) 金敬鎮, 앞의 책, 23~24쪽.

22) 李朝威, 앞의 책, 30~31쪽.

《동상기찬》 소개의 자료에는 <유의전>과의 관련을 암시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서, <이의남>이 <유의전>으로부터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 자료에는 의남과 용녀의 결연이 인과응보에 따라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즉, 의남의 아버지가 평소 선행을 즐겨 잉어 두 마리를 방생하였는데, 수놈은 죽어서 의남으로 태어났고 암놈은 아직도 살아 있는 바, 바로 용녀라는 것이었다.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사정을 밝히는 용녀의 말을 들어보자.

또 이르기를, “... 장차 당신 부모님을 모셔다가 유의의 옛 자취를 이어 수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하늘이 정하신 바니 어찌하겠어요. 그러나 당신 아버님의 은혜를 갚지 않을 수는 없으니 15년 뒤에 당신과 속세의 인연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는 의남더러 빨리 가라며 목메어 울면서 작별하였다.(又曰 : “... 將迎君父母而欲繼柳毅之迹^ㄱ야 以圖水宮之行樂이러니 今至於此^ㄴ니 天所定也라. 奈何오? 然이나 君父之恩을 不可不報니 十五年後에 與君으로 可續塵緣矣” 라 하고 使之急去^ㄷ고 嗚咽而別^ㄹ더라.)²⁴⁾

IV. <李義男>의 流變樣相과 그 意味

1. 《靑邱野談》에서 《東野彙輯》으로의 流變

조선 후기의 야담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類話가 여러 문헌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담집 사이에 자료의 수용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구야담》과 《동야회집》 사이에 직접적인 야담 자료 수용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두 야담집이 조금 앞선 시기의 야담집인 《東稗洛誦》과 《溪西野談》에서 공통적으로 자료를 수용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²⁵⁾

《청구야담》은 비교적 전대 문헌의 文面을 별다른 變改 없이 온전하게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동야회집》에서는 주제가 달라지기도 하였고, 인물 형상이 변질되기도 하였으며, 삽화를 기계적으로 결합한 경우와 구성을 변화시킨 사례들이 발견된다.²⁶⁾ <이의남>이 어떤 야담집에서 처음 유래한 것인가를 현재로서는 밝히기

23) 白斗鑪, 앞의 책, 4-28쪽.

24) 같은 책, 4-27~28쪽.

25) 任完勳, 《文獻傳承에 의한 野譚의 變貌樣相》, (서울, 成均館大學院 博士論文, 1997), 124~15 및 222~225쪽 참조.

26) 같은 글, 261~262쪽.

가 어려우나, 대체적인 수용 태도로 보아 《청구야담》의 자료가 비교적 원래의 이야기에 가까울 것이라는 짐작은 가능하다.

이 두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는 〈이의남〉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주인공인 이의남의 신분과 철산 수령의 행태 묘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이의남의 신분이 《청구야담》에는 知印으로, 《동야휘집》에는 官僮(官童)²⁷⁾으로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지인」은 조선시대 평안도와 함경도에 두었던 鄕吏로, 지방 수령의 官印을 맡아보면서 지방 행정과 군사에 관한 일도 담당하였다고 한다.²⁸⁾ 이에 비해 「관동」은 지방 수령 밑에서 심부름하는 나이 어린 하인을 말하는 것으로, 通引·貢生·硯直·知人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대체로 吏胥나 公奴의 자제들이 자원하였다고 한다.

「지인」이든 「관동」이든 조선조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은 두 야담집이 공통적이다. 이렇듯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은 전기소설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²⁹⁾ 본래의 이야기에서 知印으로 설정되어 있던 것을 《청구야담》에서는 그대로 수용하였고, 《동야휘집》에서는 知印을 知人으로 잘못 받아들였거나 의도적으로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 하층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서민의식이 대두되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철산 수령의 행태 묘사에 관한 부분의 차이를 검토해 보자. 이의남이 용녀와 인연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된 철산 수령은 용녀를 한번 볼 수 있겠느냐고 의남에게 물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 의남은 용녀와 상의해 보겠다며 수부로 찾아갔다. 의남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난처해하던 용녀가 드디어 날을 정해서 물가에서 만나기로 허락하였다. 우선 용녀와의 만남을 청하는 수령의 태도가 두 문헌 사이에 약간 달리 나타나 있다.

《청구야담》 : 또 이르기를, “너의 처가 용녀라니, 아마도 아름답고 고와서 볼 만할 것이다. 그 얼굴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네가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又曰 : “汝妻既是龍女, 則想必美麗可觀. 欲一見其面, 汝能使我見之否?”)³⁰⁾

27) 본문에는 官僮, 제목에는 官童으로 표기되어 있음.

28) 東洋學研究所 編, 《註解經國大典》(서울, 檀國大 出版部, 1987) 「吏典」, 참조.

29) 이혜순, 앞의 글, 225쪽.

30) 金敬燾, 앞의 책, 20쪽.

《동야회집》: 인하여 이르기를, “그녀가 비록 용녀이긴 하나 이미 너와 더불어 정을 나누었다니 이제 인도를 이룬 셈이다. 내가 그 얼굴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네가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因曰: “彼雖龍女, 既與汝交媾, 便成人道. 吾欲一觀其面, 汝能使我見之否?”)³¹⁾

《동야회집》의 수령이 용녀를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이유가 인간과는 다른 용녀가 人道를 이룬 데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면, 《청구야담》의 수령은 용녀의 美色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만나보려고 하였다는 차이가 드러난다. 《청구야담》의 수령에 비해 《동야회집》의 수령이 좀더 품위 있게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동야회집》에는 오히려 수령이 아닌 고을 백성들이 용녀의 미모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³²⁾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데에 《동야회집》을 엮은 李源命의 작가적 의식이 표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야담》: 사또는 뜻하지 않게 용이 나오는 것을 맞닥뜨려 보게 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라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엎드리고 말았다. 구경하러 나와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용녀는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염려스러워 즉시 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그 자리에 나왔던 관리들과 백성들이 대부분 하릴없이 돌아가고 말았다.(主倅不意撞見, 不覺驚駭, 以雙手掩目而伏, 觀光諸人, 亦無不驚駭, 龍女見其景狀愁絕, 仍即入水宮, 官吏百姓舉皆, 無聊而歸.)³³⁾

《동야회집》: 구경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두려워하면서 다투어 흩어져 달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용은 꿈틀거리며 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또도 하릴없이 돌아갔다.(觀者莫不大驚, 怖爭逃散, 龍乃蜿蜒入水去了, 守亦無聊而歸.)³⁴⁾

용녀와 수령이 대면하는 대목이다. 《청구야담》에는 용녀의 출현을 보고 구경꾼들이 깜짝 놀랐을 뿐더러, 수령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두 손으로 눈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엎드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 《동야회집》에는 수령의 특별한 반응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용녀가 물 속으로 사라지자 무리히 돌아가는 것으로 그려진 것이 수령에 대한 묘사의 전부이다. 《청구야담》에서는 이와 반대로 수령을 따라 구경하러 나왔던 관리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이 무리히 돌아가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31) 李源命, 鄭明基 編, 《原本東野彙輯》(서울, 寶庫社, 1992), 734쪽.

32) 같은 책, 735쪽: 「俄而風起水湧, 波紋自開, 萬目咸注擬觀絕代美色。」

33) 金敬嬾, 앞의 책, 21~22쪽.

34) 李源命, 앞의 책, 735쪽.

용녀와의 대면을 의남에게 요청하는 대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청구야담》에서는 수령의 모습을 약간 경망스럽게 戲畫化하여 그리고 있는데 반해, 《동야취집》에서는 놀랄 만한 일에 닥쳐서도 별반 동요함이 없는 모습으로 수령을 그리고 있다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여기에도 역시 양반 사대부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려는 이원명의 작가의식이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靑邱野談》에서 《東廂記纂》으로의 流變

《청구야담》은 《동상기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야담집의 하나이다. 《동상기찬》 제1~5권에 실려 있는 80편의 야담 가운데 연세대 소장 4권4책본 《紀聞叢話》를 수용한 것이 46편, 《청구야담》에 전하는 자료를 수용한 것이 30편에 이른다. 《동상기찬》 역시 《청구야담》과 마찬가지로 전대 문헌의 자료를 대체로 별다른 차이 없이 그대로 전재하고 있으나, <이의남>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청구야담》에 전하는 자료의 개요를 작성한 뒤 《동상기찬》의 자료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 (1) 철산 지인 이의남이 사또를 따라 서울에 가서 한강을 구경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 (2)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편지를 주면서 아무 산 밑에 있는 연못에 가서 유철을 세 번 부른 뒤 사람이 나오면 전해 달라고 하였다.
- (3) 잠이 깨어보니 옆에 편지가 놓여 있어서 시킨 대로 하니, 수중에서 사람이 나와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 (4) 용녀를 그를 맞이하면서 부친의 편지에 그녀와 의남이 혼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 (5) 그녀와 혼인을 하고 머물다 옷을 선물 받고 돌아오니, 사또가 그의 옷이 이상한 것을 보고 자초지종을 캐물었다.
- (6) 사또가 용녀를 보고 싶다고 하므로, 의남이 용녀에게 말하니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 (7) 약속한 날 못 가에 사또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황룡이 나타나 모두 깜짝 놀랐다.
- (8)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리지 않자 사또는 용녀에게 비를 부탁하라고 하였는데, 용녀는 난처해 하다가 마지못해 비를 내려주기로 하였다.
- (9) 용녀를 따라간 의남이 용녀가 손에 들고 있던 병의 물을 다 쏟자, 용녀는 천제의 명을 어겨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며 뼈를 묻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 (10) 의남이 용녀와 헤어져 돌아오니 온 고을에 홍수가 나 있었다.
- (11) 의남은 용녀의 말대로 백각산에 가서 그녀의 뼈를 모아 묻어주고 통곡하며

돌아왔다.

《동상기찬》 소재의 <이의남>은 《청구야담》 소재의 자료와 동일하게 진행되어 가다가 (8)에 이르러 약간 달라지게 된다. 의남이 수령의 요청에 따라 용녀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용이 비를 내리는 것은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난처해 하다가 의남의 간곡한 부탁으로 마지못해 수락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동상기찬》에는 의남의 간곡한 부탁에 「용녀는 정색을 하고 못마땅한 듯이 말하기를,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이 한번 비를 내려보겠습니다만, 당신과의 인연은 끝나고 말 테니 어찌지요?”」³⁵⁾라고 하여 장차 결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을 깔고 있다.

(9)의 대목도 《동상기찬》에는 약간의 부연이 이루어져 있다. 용녀가 자신과의 정을 잊지 않는다면 다음날 백각산 아래에 가서 자신의 유골을 수습하여 묻어 달라고 부탁을 한 데 이어 의남과 용녀가 맺어지게 된 연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15년 뒤에 다시 만나 속세에서의 인연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언질까지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⁶⁾

(10)의 대목에도 약간의 부연이 이루어져 있다. 의남이 용녀와 결별하고 돌아와 온 고을에 홍수가 난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용녀에게서 들은 말을 자기 아버지에게 확인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의남의 아버지는 과연 용녀가 말한 그 당시 어느 연못가를 지나다가 어부가 잉어 두 마리를 잡아 놓은 것을 보고 가없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주고 사서 방생하였다고 말해주었다.³⁷⁾ 이는 용녀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면서, 의남과 용녀의 만남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상기찬》에는 《청구야담》이나 《동야취집》에 없는 후일담이 덧붙여져 있다. 용녀가 결별할 때 예언한 15년 뒤의 재회에 관한 내용이다. 의남이 아내를 얻으려 해서 여러 곳에 혼담이 오갔으나 지체가 달라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

35) 白斗籙, <李義男> : 「龍女」惘然不樂曰 : 「然則不得不一往施法이나 與君으로 緣盡矣리니 奈何?」, 앞의 책, 4-26쪽.

36) 「又曰 : 「君父」平日에 行善호야 好放生 而某年月日에 放二鯉호야 雄死而投胎호니 郎君이오 雌生而尙存호니 卽我也라. 以是因緣으로 吾父」使君傳書而成婚호야 將迎君父母而欲繼柳毅之迹호야 以圖水宮之行樂이러니 今至於此호니 天所定也라. 奈何? 然이나 君父之恩을 不可不報니 十五年後에 與君으로 可續塵緣矣라.」 호고 使之急去호고 嗚咽而別호더라.」, 같은 책, 4-7-28쪽.

37) 「以龍女之言으로 問于其父호니 果於其時에 經過澤畔이러가 見漁者」獲二鯉魚호니 甚大라. 一死一生이어늘 心憐之호야 以錢買之호야 有並放澤中之事也라.」, 같은 책, 4-28쪽.

다. 그래서 단념하고 있던 중 용천읍에 사는 용씨 집안과 통혼이 되었다. 그녀는 자색이 아름답고 성품이 유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살림살이를 잘해 재산도 모으고 자녀도 많이 낳아 길렀다. 의남이 그녀에게 태어난 시각을 물어보니 바로 용녀의 유골을 묻던 때였다. 이렇게 해서 15년 뒤에 속세의 인연을 잇겠다던 용녀의 말이 증명된 셈이었다.³⁸⁾

이렇듯, <이의남>이 《동상기찬》에 이르러 因果應報의 구성을 갖추어 나간 것은 傳奇的인 逸話가 전기적인 漢文短篇으로 소설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인과응보는 이야기의 구성방식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를 구성한 작자의 주제의식과 사상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한다. 즉 전기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의도적인 창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야담》의 기본 틀을 수용한 《동상기찬》의 <이의남>은 신분적으로 미천한 「이의남」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은연중 양반인 수령의 모습을 희화화함으로써 서민의식이 대두하던 당대의 사회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의 또 하나의 특징과 부합된다.

그리고 <이의남>에는 남녀간의 애정으로 인한 갈등 양상도 그대로 표출되어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수령의 요구로 인한 의남과 용녀의 갈등이 《청구야담》이나 《동야회집》에서보다 《동상기찬》에 이르러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의남이 용녀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앞의 두 자료에서는 처음에 난처해하다가도 마지못해 응낙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이의남>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³⁹⁾ 약간의 갈등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의남>에는 용녀가 비를 내리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의남의 호기심으로 인해 양자 사이에 갈등이 다시 한번 드러나 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까봐 걱정되어 당신을 물리쳐서 저를 따라오시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吾始慮其然故拒君不隨來.”)까지는 《청구야담》⁴⁰⁾이나 《동상기찬》⁴¹⁾ 자료의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나 <이의남>에는 “상제의 명이 없이 비를 내리는 것도 이미 하늘의 뜻을

38) 「時에 義男의 年이 十五歲라. 後欲娶妻호야 屢慮議婚而差池(sic地)호야 終不成호거늘 遂斷念이러니 有龍川呂龍姓家에 通婚이어늘 遂娶호거니 年方十五而姿色이 甚麗호고 性行이 極順호야 以善事舅姑로 後至於自官給復而尤工織錦호고 持家勤儉호야 饒富於財호고 多育子女호거니 라. 義男이 卽其生時則卽某年埋龍頭之日也니 十五年後에 更續塵緣之言이 驗矣而地與姓이 爲 確證也로다. 此莫非天定而實由於其父陰功之所致云이러라.」, 같은 책, 4-28~29쪽.

39) 앞의 주 31) 참조.

40) 金敬鍊, 앞의 책, 23쪽.

41) 白斗簫, 앞의 책, 27쪽 : 「吾 始慮其然故로 拒君호야不使隨來者也라.」

거스르는 것이지요.”(“無命行雨도 已是逆天…”),⁴²⁾라고 함으로써 용녀의 의남에 대한 애정이 예사롭지 않은 것임을 시사하면서, 용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애정으로 인한 갈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V. 마무리

《靑邱野談》·《東野彙輯》·《東廂記纂》 등에 수록되어 전하는 <李義男>은 조선조 말에 전파된 이야기로서는 약간 특이하게 傳奇的 성격을 짙게 띠고 있다. 인간이 水府를 왕래하는 이야기이면서, 인간과 神龍의 異交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여타의 야담 자료들에 비해 작가 나름의 창작 의도가 엿보이고, 사회현실이 적지 않게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인 주인공과 용녀 사이에 애정으로 인한 갈등양상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의남>이야기가 中國 唐代 李朝威가 지은 <柳毅傳>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데 착안하였다. 제Ⅱ장에서는 현재까지 야담자료에 산견되는 傳奇 관련기록을 살펴 <유의전>의 유입 및 접촉 경로를 추적해보았다. 전기는 <유의전>·<鶯鶯傳>·<李娃傳> 등 개별 작품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보다는 고려시대에 이미 이 땅에 들어온 《太平廣記》를 통해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유의전> 역시 《태평광기》 소재의 자료를 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Ⅲ장에서 <유의전>과 <이의남>을 대조해본 결과, <유의전>에서 <이의남>으로 차용된 話素는 「傳書」·「龍女와의 結緣」·「용녀와의 訣別」·「용녀의 幻生과 再會」 등임을 알 수 있었다. 공통의 화소라고는 하였으나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두 작품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유의전>에서는 남주인공(유의)이 여주인공(용녀)의 부탁을 받고 여주인공의 아버지(동정군)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의남>에는 남주인공(이의남)이 여주인공 아버지(용왕)의 부탁을 받고 여주인공(용녀)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으로 달리 설정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인 남주인공이 水府로 들어가는 방법에도 차이가 드러나 있다. <유의전>에는 허리띠를 풀고 동정호 남쪽에 있는 굴나무를 세 번 두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의남>에는 연못에 가서 '유철'을 세 번 부르는 것으로 약간 간략하게 되어 있다.

42) 같은 곳.

〈유의전〉에는 유의와 용녀의 숙부인 전당군 사이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수부에서의 결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이의남〉에서는 별다른 갈등이 없이 수부에서의 결연이 너무나 순조롭게 끝나고 만다. 이의남은 사람과 다른 異類인 용녀와의 혼인에 대해 별다른 고민이 없이 그녀의 미모만을 살피고는 수락하였던 것이다.

남녀 주인공 사이의 결별 또한 두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처음에 전당군의 제의를 결연하게 뿌리쳤던 유의는 동정군 부인과 용녀의 아쉬워하는 듯한 태도에 그 자신도 일말의 아쉬움을 간직한 채 수부를 떠나게 된다. 이에 비해 이의남과 용녀의 결별은 뜻하지 않았던 일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지게 된다. 용녀가 의남의 부탁으로 비를 내려줄 때 의남의 돌출행동으로 용녀는 하늘에 죄를 지어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유의전〉에서 용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노씨로 환생하여 상처를 거듭한 유의의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재회가 이루어진다.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한 용녀(과부 노씨)의 짝으로 두 번이나 상처를 한 홀아비 유의가 맺어지게 한 것은 흥미롭다. 이에 비해 이의남과 용녀의 재회는 결혼생활에 실패하였던 당사자들끼리의 재결합이라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의남은 용녀 이외의 아내를 얻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틀어졌고, 마침내 용녀가 환생한 용씨녀를 만나 혼인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이의남〉이 야담집 간에 유변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최초로 형성되었던 〈이의남〉의 자료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대체적으로 전대의 자료를 별다른 가감 없이 수용한 《청구야담》의 자료가 비교적 원형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청구야담》에서 《동야휘집》으로의 유변과 《청구야담》에서 《동상기찬》으로의 유변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청구야담》과 《동야휘집》은 주인공인 이의남의 신분을 각각 知印官 官僮이라고 설정함으로써 하층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서민 의식이 대두되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철산 수령에 대한 두 야담집의 태도는 대조적이다. 《청구야담》에서는 백성들보다 속물적이고 겁이 많은 인물로 戲畫化한 반면, 《동야휘집》에서는 수령을 威嚴이 있는 인물로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속물적이고 겁이 많은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는 중세적 권위 의식을 되찾으려 한 이원명의 작가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동상기찬》에 실려 있는 자료는 《기문총화》와 《청구야담》을 수용한 것이 다수이고, 수용 태도에 있어서도 대체로 별다른 가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의남>의 경우는 예외로서 후일담이 이어져 있다. 이는 이의남과 용녀 사이의 전기적 애정관계를 因果應報의 구성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백두용의 작가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전하고 있는 <이의남> 자료는 모두가 19세기 이후의 것이다. 심지어 《동상기찬》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출간된 것이다. 이미 근대로의 전환기 이후에 구태 의연하게도 웬 전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대량으로 출간된 고전소설이 '봉건성'과 '통속성'을 지닌 조악한 읽을거리로만 존립했던 것이 아니듯이, 야담 혹은 한문단편 또한 일제의 이른바 문화정책으로 인해 현대소설이 감당해야 하면서도 감당할 수 없었던 구실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⁴³⁾

【참고서목】

- 干寶·魯迅, 《搜神記·唐宋傳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1986.
 金敬鎮, 李佑成 編, 《青邱野談》上·下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5.
 白斗鏞 編, 《東廂記纂》 京城, 翰南書林, 1918.
 吳志達, 《唐人傳奇》 台北, 木鐸出版社, 1983.
 李 昉 等編, 《太平廣記》 台北, 文史哲出版社, 1981.
 李源命, 鄭明基 編, 《原本 東野集輯》 서울, 寶庫社, 1992.
 任 墜, 《天倪錄》, 鄭明基 編, 《韓國野談資料集成》8 서울, 啓明文化社, 1987.
 丁範鎮 編譯, 《앵앵전》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1995.
 刊行委, 《古小說史의 諸問題》 서울, 집문당, 1993.
 金鐘聲, 《唐傳奇에 表出된 人生觀 및 愛情觀》, 《中國語文論叢》7 서울, 中國語文硏究會, 1994.

43) 장효현, <근대 전환기 고전소설 수용의 역사성>, 《고소설연구1》(서울, 태학사, 1997), 582-83쪽.

- 金鉉龍, 〈韓國說話小說에 끼친 太平廣記의 影響研究〉 서울, 建國大 박사논문, 1976.
- 魯迅, 趙寬熙 譯, 《中國小說史略》 서울, 살림, 1998.
- 朴熙秉, 《韓國傳奇小說의 美學》 서울, 돌베개, 1997.
- 裴世珍, 〈太平廣記의 龍說話研究〉 清原, 韓國敎員大 석사논문, 1998.
- 石明, 〈唐傳奇의 小說의 特性研究〉 서울, 서울대 석사논문, 1987.
- 柳鐸一, 〈京板 坊刻小說 研究方向〉, 《陶南學報》7 서울, 陶南學會, 1984.
- 任完熾, 〈文獻傳承에 의한 野譚의 變貌樣相〉 서울,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7.
- 林燐澤, 《韓國文學史의 視覺》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4.
- 鄭明基, 《한국야담문학연구》 서울, 보고사, 1996.
- 장효현, 〈근대 전환기 고전소설 수용의 역사성〉, 《고소설연구》1 서울, 태학사, 1997.
- 全寅初, 《中國古代小說研究》 서울, 延世大 出版部, 1985.
- 丁範鎭, 《唐代小說研究》 서울, 成均館大 出版部, 1982.
- 趙惠蘭, 〈京板 坊刻本 小說의 特性〉, 《古小說의 著作과 傳播》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5.
- 진무현, 〈太平廣記諺解攷〉 釜山, 東亞大 석사논문, 1980.
- 崔福女, 〈魏晉南北朝 志怪의 鬼모티프 분석〉 서울, 韓國外國語大 석사논문, 2000.
- 王夢鷗, 《唐人小說研究》 台北, 藝文印書館, 1971.
- 劉瑛, 《唐代傳奇研究》 台北, 正中書局, 1982.
- 祝秀俠, 《唐代傳奇研究》 台北, 中國文化大學 出版部, 1982.

【중문제요】

《青邱野談》、《東野彙韻》、《東廂記纂》等所收錄의 〈李義男〉在朝鮮時代末期傳播의 野談當中傳奇의 色彩比較濃. 它描寫了人間到水府來往의 故事, 凡人與神龍의 異交故事. 通過主人公人間의 李義南與水府의 龍女之間의 愛情糾葛, 與其它野談資料相比可以更多地窺見作家自己의 創作意圖, 即反映廣闊의 社會現實. 這篇論文指出: 〈李義男〉是在中國唐代李朝威의 〈柳毅傳〉의 基礎上產生의. 第Ⅱ章察看現在散見於傳奇의 有關記錄而追蹤 〈柳毅傳〉의 流入和受容過程.

第Ⅲ章, 從 〈柳毅傳〉和 〈李義男〉의 對照結果, 可以知道 〈李義男〉借用了 〈柳毅傳〉의 「傳書」、「和龍女의 結緣」、「和龍女의 訣別」、「龍女의 幻生和再會」等等의 話素. 雖然話素大體相同, 但是察看細節不都是一致의.

第Ⅳ章, 從野談集의 相互關係中察看 〈李義男〉怎么流變, 有什么樣의 樣式. 與 〈李義男〉有關의 最早의 資料現在還不能確認, 但可以推定 《青邱野談》의 資料比較接近原型. 這

樣，可以推定<李義南>從《青邱野談》流變到《東野彙輯》，從《青邱野談》流變到《東廂記纂》。

《青邱野談》和《東野彙輯》有一個共同點，就是把主人公李義男設定為知印和官僮，因而下層人物成為主角。這可說朝鮮後期庶民意識擡頭的社會現狀和價值觀的反映。但兩本野談集對鐵山守令的性格刻畫是不同的，在《青邱野談》中把守令當作比一般老百姓更世俗、更小極的人物來戲畫，而在《東野彙輯》中却把守令描寫為是謹嚴的人物，把老百姓描寫為俗物、胆小鬼。這是李源命之找回中世的權威意識的作家意識作用的結果。

《東廂記纂》裏的資料大部分是從《記聞叢話》和《青邱野談》摘取來的，收錄的觀點大體上沒有什麼變化。但<李義男>是個例外，有後日談。這是白斗鏞要以因果報應的方式說傳奇的愛情故事的作家意識的結果。

【주제어】

전기(傳奇), 야담(野談), 이의남(李義男), 유의전(柳毅傳)